



감염여성 혹은 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레드리본은 에이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에이즈 인식 전환의 실마리를 찾고자 2005년 한 해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시민 5인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으로 윤리적 문제와 감염인의 인권 문제로 양분되는 감염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질병을 대물림해선 안돼~

나는 솔직히 에이즈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임신·출산과 맞물려 에이즈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좀 벅차다.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프면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린다. “가임여성”과 “임산부” 역시 태아에게 미칠 아주 사소한 영향력도 결코 지나치지 못한다. 하물며 에이즈 감염인의 임신·출산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런지.

감염경로가 어찌 되었건, 수직감염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은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질병을 대물림한다는 것 자체가 논의 대상 밖의 문제 아닐까. 다만, 임신을 한 이후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윤리적 문제를 논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겠다. 그 경우라면 설부른 인공유산보다는 현대의학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에이즈란 병이 인간의 권리를 포기할 만큼 더 중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경희(35세 · 기혼/회사원)

고통을 자식에게까지 전하는 건 이기적

감염된 여성 혹은 감염된 부부가 감염사실을 알고 임신을 하거나 출산하였다면 생명의 존귀함을 떠나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라고 생각한다. 부모라면 자식을 낳아서 이쁘게 키우고 싶은 게 욕심이고 본능이기 마련이고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은 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감염된 여성 또는 부부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다면 자식에게 고통을 안겨 주게 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런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기 이기적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다. 하지만 존귀함에 있어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좀더 하는 성숙한 모습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 아내 또는 여자 친구가 그런 경우라면 임신을 하지 않게 피임도 하겠지만, 혹시 임신이라면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낙태를 결정할 것이다.

장우일(29세 · 미혼/회사원)

불행은 나의 선에서 끝나야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를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

본인이 감염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감염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불행하게 될 것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아픔과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지.

물론 감염보균자라 해서 태어날 아이가 감염보균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감염보균자가 아닐 수 있다는 부모의 판단이 아이와 주변사람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에이즈 감염보균자를 가진 아이는 장애아이고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이즈 보균자 아이는 아마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상처만 남긴 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난 에이즈환자를 경멸하거나 미워하지는 않는다. 나 또한 언제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가 될지가 모르고 아무튼 서로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을 피해갔음 좋겠다.

정말로 아이와 본인을 사랑한다면 나의 불행은 나 하나만으로 끝났음 좋겠다.

송현수(34세 · 기혼/회사원)

개인의 출산을 타인이 비난할 수는 없을 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임신이 된 경우와 알고서 임신을 하는 경우. 내 자신의 상황에 대처시켜 보았을 때, 첫째째 모르면서 임신이 된 경우라면,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출산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좀 더 기운다. 그 이유는 첫째, 스스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일 것이라, 내 한몸 챙기기도 버거울 것 같고, 둘째, 내가 책임지지 못할 생명이라는 점. 셋째, 건강하지 못한 애기일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하여 출산이 힘들 것 같다.

스스로 HIV임을 아는 경우라면, 당연히 모든 처방과 사전 조치를 통해 안전한 방법을 통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찬성에 가깝다. 절대 비난하거나 한술 더 떠 행정적 관리를 통해 임신을 차단하거나, 낙태를 유도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일은 없었으면 한다.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확실하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사회적 비난, 차단,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인간적 모욕이자, 미필적 고의를 심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 생각한다.

1대에 1명 이상의 암환자를 낳는 가계혈통이라 하여 결혼이나 출산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물론 HIV의 경우 '전염'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출산을 반대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개인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본다.

이미정(32세 · 미혼/회사원)

임신 · 출산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

에이즈가 주는 충격적인 이미지 때문에 처음에는 감염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은 여성으로서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어느 여성도 자기 혈육의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에이즈에 걸린 여성이라면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어느 누구보다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감염된 아이보다는 정상아를 낳을 확률이 더 높고 치료제를 쓰면 그 확률이 훨씬 높아 정상아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를 실령 낳더라도 자기를 닮은 아이를 한번 낳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홍관석(30세 · 기혼/연구원)